

전남지역 외국인 소유 토지 3769만㎡ … 전국 2위

여수·광양 등 외국합자법인 토지 많아

국내 총 2억2500만㎡, 금액으로 32조원

올해 3분기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이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남은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 소유 토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내놓은 '2013년 3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2576만㎡(225.76㎢)

3769만㎡로, 전국 외국인 소유 토지의 16.7%를 차지했으며 경기도(3913만㎡·17.3%)에 이어 전국 2위 규모를 차지했다.

규모로는 2위였지만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10조188㎢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 57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분기(2조2574만㎡) 보다 2만㎡(0.01%), 금액은 1579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전남지역의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 분기(3772만㎡)보다 3만㎡가 줄어든

이 많기 때문이다. 산단 사업장은 필지당 규모가 커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전남에선 코리아카본, 지에스칼텍스, 금호폴리텍 등 합자법인이 많은 여수가 가장 넓은 면적의 외국인 소유 토지를 보유했고, 이어 광양과 해남, 무안, 순천 순이었다. 해남은 법인이 아닌 외국 국적 교포가 조상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600필지가 물려 있었다.

광주지역 외국인 소유 토지는 344만 6000㎡로,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의 1.5%를 차지했으며 토지가액은

4016억원에 달했다.

전국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가장 많은 1억 2626만㎡(55.9%)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합자법인 7238만㎡(32.1%), 순수 외국법인 1624만㎡(7.2%), 순수 외국인이 1037만㎡(4.6%)를 소유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 2256만㎡(54.3%)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럽 2398만㎡(10.6%), 일본 1715만㎡(7.6%), 중국 657만㎡(2.9%) 등이 뒤를 이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건조한 날씨 보습제품 인기

기운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화장품매장에서 한 고객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보습제품을 사용해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호남 쇼핑 메카' 자리매김

목포·화순 등 도민 상당수 원정 쇼핑 늘어

목포·화순 등 전남도민 상당수 가 원거리에서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는 등 롯데백화점이 광주·전남의 '쇼핑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출 추이 분석을 한 결과, 광주를 찾는 전남 원정쇼핑객이 점차 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달은 12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년 12월은 한해동안 전 체 원정쇼핑객의 평균 16%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며 백화점 쇼핑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풀, 캐주얼 의류 등이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원정 쇼핑객을 잡기 위한 다양한 판매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겨울 정기 바겐 세일 기간 중 전남 지역 고객에 대한 전단 및 DM(Direct Mail) 횟수를

30% 늘리고 주유품권 등 교통비 보상하는 차별화된 사은품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고온성 롯데백화점 광주점 홍보과장은 "12월은 광주가 쇼핑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며, "시외 원정 쇼핑객을 위한 차별화 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로 구매하는 쇼핑리스트로는 겨울나기에 적합한 아웃도어 방한의류가 가장 많았고 화장

품, 캐주얼 의류 등이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원정 쇼핑객을 잡기 위한 다양한 판매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겨울 정기 바겐 세일 기간 중 전남 지역 고객에 대한 전단 및 DM(Direct Mail) 횟수를

30% 늘리고 주유품권 등 교통비 보상하는 차별화된 사은품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고온성 롯데백화점 광주점 홍보과장은 "12월은 광주가 쇼핑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며, "시외 원정 쇼핑객을 위한 차별화 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로 구매하는 쇼핑리스트로는 겨울나기에 적합한 아웃도어 방한의류가 가장 많았고 화장

국민은행 주택기금 횡령 100억 넘어

연루 직원도 10명

국민은행의 부실과 비리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횡령 사건은 규모가 100억원을 넘고, 연루 직원도 1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로 흘러온 도쿄(東京)지점 비자금 중 용처를 알 수 없는 상품권 구매에 쓰인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위조·횡령의 규모는 당초 약 90억원을 훨씬 웃돌아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에 착수한 이 사안은 국민은행 본점 신탁기금부 직원들이 공모, 고객이 맡긴 국민주택채권 실물을 위조해 내다 파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사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 금액은 9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이보다 훨씬 더 될 수 있다"고 내부의 판단"이라면서 "본점 직원과 영업점 직

원의 공모 정황을 고려하면 규모는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도 애초에는 신탁기금부문과 영업점 직원 3명으로 알려졌으나,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10명 이상이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해주시지 않았지만 "처음에 국민은행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애초에 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루된 직원 중에는 과거 국민은행 감찰반에 근무한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내부통제의 허술함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부당 대출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내로 흘러온 비자금 가운데 상품권 구매에 쓰인 돈이 기준에 알려진 3000만원 수준보다 큰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공무원연금공단 업무협약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는 퇴직공무원 지원과 주택연금의 공급 활성화 등을 통한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공무원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등의 안내와 정보교류를 비롯해 퇴직공무원 지원사업과 주택연금을 연계한 사업홍보, 양 기관의 직원 및 고객 대상 공무원연금·주택연금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상호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 관계자는 "양 기관은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퇴직공무원 지원사업과 주택연금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이날 현재 총 446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으며 올해 들어에서도 134명이 신규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가입자가 25%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애 키우느라..." 일 포기한 여성 증가

기혼 여성 5명 중 한 명은 일을 하다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한 20~30대 여성의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은 작년보다 다 심각해졌다.

27일 통계청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이용해 집계한 '2013년 경력단절 여성 통계'를 보면, 결혼·임신·출산·육아·초등학생 자녀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기혼 여성은 195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15~54세 기혼 여성 971만3000명 중 20.1%다. 경기침체로 직장을 구하는 주부가 늘면서 지난해 6월 조사 당시(20.3%)보다 소폭 줄었다.

기혼 여성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 성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08만 1000명(55.3%)로 가장 많았다. 40대는 53만2000명(27.2%), 15~29세는 21만9000명(11.2%), 50~54세는 12만3000명(6.3%)이었다.

일을 그만둔 사유는 결혼이 45.9%로 가장 많았다. 육아(29.2%), 27일 기간이 '1년 미만', '3~5년 미만', '10~20년 미만'인 여성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1~3년 미만', '5~10년 미만', '20년 이상'인 여성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직장을 그만둔 시기별로 연령대를 살펴보면 '1년 미만', '1~3년 미만'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년 대비 활발해 해온 20~30대 기혼여성에게서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이 작년보다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30대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34.0%로 지난해 조사(27.4%) 때보다 6.6%포인트 상승했다. 15~29세의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비율은 26.9%로 작년(23.1%)보다 3.8%포인트 높아졌다.

경력단절 여성 195만5000명이 직장을 그만둔 시기로 보면 10~20년 미만이 27%(52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9.6%(18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늘고, 10년 미만 단절된 여성은 1~2% 감소했다.

김 차장은 이날 참업자 및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시제품제작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 축하 및 격려행사를 진행한다.

또 광주 양동시장에서는 5개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구매고객에게 경품권 배포, 장바구니 증정, 온누리상품권 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순철 중기청 차장 내광

김 순철 중기청 차장이 28일 광주·전남중기청의 시제품제작센터 개소식 축하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이용 캠페인 격려 등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segistar.co.kr)

www.segistar.co.kr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 광주점으로 010-4477-5110

문의전화 010-2225-5110

세계보청기

세계보청기

세계보청기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세계보청기

세계보청기

세계보청기